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곤포아트전

축제기간 의암공원 중심 아이들이 그린 그림·만화캐릭터 등 90여개 작품 전시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대표프로그램 중 하나인 곤포아트전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곤포아트전은 한우의 먹이인 조사를 랩핑한 곤포사일리지에 만화캐릭터, 풍경 등의 그림을 곤포에 그린 작품들을 전시한 것이다.

이번 곤포아트전은 축제기간 4일 동안 장수군 의암공원을 중심으로 장수군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만화캐릭터, 무지개, 다양한 표정의 사과 등 90여개의 작품이 전시되며, 장수군을 찾는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랜선 사랑의 소원패, 랜선 한우마당, 라이브 커머스 등을 온라인 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레드



장수군 곤포아트 자료사진.

컬러 축제에 걸맞게 장수 한우, 사과, 오미자 등 농특산물과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확산 방지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15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비대면으로 전환한 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집에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의회 한국회 의원 군정질문

지방도 721호선 도로 개선·산서 하월리 축사 악취 해소 방안 촉구

장수군의회는 한국회 의원이 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산서면을 지나는 지방도 721호선 도로 개선과 산서 하월리 축사 악취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에서 한국회 의원은 "지방도 721호선 중, △대창마을에서 이룡교를 연결하는 구간이 산서시장과 면사무소, 산서중고등학교를 지나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선형이 불안정하고, 도로 폭이 좁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노선 개량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최근 쌍계리 일원의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덩크트럭의 과

속문제에 대한 과속방지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란다"고 군에 건의했다.

이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산서지역 둔사 악취문제 해결에도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제3차 전라북도 지방도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시 해당구간에 대한 개선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쌍계리 일원의 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둔사에 대한 악취문제 역시 매입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국민안전교육 평가 '우수'

행안부 실시 실태 점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도 국민안전교육 실태 점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춘성 진안군수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은 '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7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안전교육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안전교육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진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이번 점검에서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활용 등 모든 분야에 고른 성적을 받았다. 또한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기관은 중앙부처 6개와 시·도 5개 기관, 시·군·구 68개 기관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 스스로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안전취약계층 및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진안,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 덕곡마을서 '마을로 가는 축제' 열려

마을주민·체험객 참여 마을교류·체험행사 진행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에서 축제가 열려 마을주민들과 체험객들이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20일 무주군 안성면 덕곡마을 체험센터에서는 마을주민을 비롯해 체험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곡마을 마을로 가는 축제를 열었다. 이날 열린 마을축제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축제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

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일주민들과 체험객들의 일체감 형성과 농촌을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꼽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체험객들이 참여한 마을교류 행사는 웃음이를 통해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사과잼 만들기 체험 등 체험행사를 가졌다. 체험객들은 특히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숙박체험으로 도시생활에 지냈었던 스트레스를 푸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또 휴양마을 체험관에서 사

과잼 만들기과 스트링아트 등 사과 가공·공예 체험을 가졌으며, 마을 산책 코스 트래킹, 휴양마을 주변에 위치한 사과 찹고도 견학하면서 특색 있는 농촌생활을 보낼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마을로가는축제는 마을주민들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체험객들에게 무주의 특색있는 농촌마을 소개와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행사"라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을 경우 관내 읍면 각 마을에서 마을로가는축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최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20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 22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2건, 민간위탁동의안 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최일인 20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3건 상정되어 있다. 이해연 의원은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유송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안'에서는 ▲지역 내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음주폐해로부터의 군민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이광환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에서는 반딧불이 보호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노력, ▲보호활동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시회는 안전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1일 상임위원 안전 질의답변을 거쳐 22일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읍·천천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

장수군은 22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수읍과 천천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준공된다.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장수읍 대성리 일원의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천천면 오봉리·연평리 일원의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9년 3월 공사를 시작했다.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52억원을 확보, 2019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증설 85톤/일, 하수관

로 5.188km, 맨홀펌프장 8개소, 배수설비 160가구 등의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49억원을 확보해 2019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하수처리장 신설 증설 90톤/일, 하수관로 13.807km, 맨홀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 204가구 등을 설치 완료했다.

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오염물 제거와 정화과정을 통해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올해 사과수확 체험 행사 전면 취소

무주군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사과수확 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후기 품종 수확체험을 취소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무주군은 최근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과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사과(후지) 수확 체험행사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올해 사과나무 수확체험을 제공하는 사과분양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분양신청은 매년 1월초 무주군 사과분양 홈페이지(<http://tour.muju.go.kr/apple/>)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주당 10만 원으로 30kg을 보장해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시 찾고 싶은 진안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만들기 최선

진안군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선화)는 다시 찾고 싶은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친절 5S 운동'을 펼치고 나섰다.

5S는 '웃으면서 맞이하고'(Smile), '민원인의 도우미에 적극 지원'(Support), '신속한 서비스'(Speed), '밝은 표정으로 민원응대'(Sunny)와 '민원인에게 감사하기'(Say thank you)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환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어서오세요.'라며 크게 반기고, 필요한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당 부서에 안내하고, 잠시 대기 중인 민원인에게는 직원들이 음료를 가져다주면서 '기다리시는 동안 차 한잔 드세요.'라고 친절하게 권한다.

친절 5S 운동을 펼치자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봉하리 박희규 이장은 "직원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선화 면장은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 다시 찾고 싶은 정천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장안산 갈대밭

의회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